

연수중의 많은 만남

김성진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부설 복십자의원장

106일간 의 연수과정을 돌이켜 보며 제일 값진 경험은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은 넓은 시야와 자신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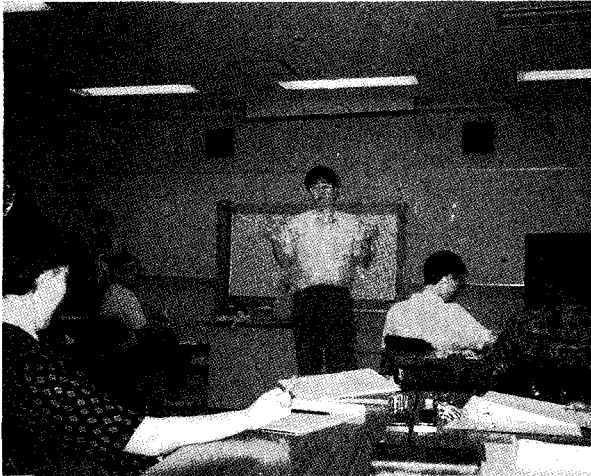
아울러 다른 문화권과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들을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기였다. 일본 체류중 만났던 한 유학생은 인생중 가장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에게도 지나고 나니 그때가 가장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공부하는 재미를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던 때가 아닌가

생각 되어진다.

개인차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침 문화권에 속하여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습관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

거실에 있는 TV에서 영어 뉴스를 듣고 있으면 남미의 니과라과, 파라과이 의사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네팔 의사들이 운동이나, 식사를 준비할 뿐 나머지 연수



▲ 연수생 전부는 의무적으로 연제발표 및 토론식의 수업을 해야했다.

생은 매일 늦잠이고 그들은 밤새워 작업을 하는 저녁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특히 열대지역의 연수생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게으름을 피며 늦장의 여

유를 부리는 것 같았다.

우리 민족의 부지런하고 일에 악착스러움은 다른나라 사람과 비교하여 뒤지지 않는 것이다. 좀더 우리의 주변환경이 나아지고 올바른 지도자가 이끌기만 한다면 쉽게 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숙사내의 식당과 부엌을 이용하여 손수 식사를 준비하였던 관계로 다른 나라의 일상적인 음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가스버너,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토스터기가 있어서 재료만 준비하면 음식 솜씨에 따라 멋진 식사를 할 수도 있었다. 연수자중 최고의 요리사는 중국인 남자의사로 전통적으로 매년 중국연수생이 가장 맛있고 훌륭한 식사를 준비하였다고 알려졌다. 그는 중국에서도 맛벌이 부부인 이유로 부인 못지않은 요리실력이 있었으나 연수기간 중 수련을 더 쌓을 수 있어서 마지막 연수생들이 주최한 파티에서 버섯과 나물요리로 그의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요리사로 전직하겠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길지 않은 연수기간동안 일본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역부족이라는 생각은 감출 수 없으며 일본은 잘 정돈되고 빈부차이가 적은 규격화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경에서의 생활중 그들이 부러웠던 한가지는 공해산업과 하수처리를 철저히 관리하여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과 주변 하천에서 주민들이 낚시를 즐길 수 있게 한 환경이었다.

일본의 결핵관리를 소개하는 학습과

정중 보건복지부의 한 부서와 보건소들을 방문하였는데 관내의 병원에서 발생된 결핵환자는 보건소의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결핵연구소와 함께 관리하는 전국적인 결핵감시체제를 갖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정책과 역학조사에 이용하고 있었다.

이와는 다른 전염병관리체계도 있었는데 지역내에 병원과 보건소가 연결되어 전염병 발생보고는 중앙정부에서 처리하여 일기예보 기상도와 같은 전염병 지도를 만들어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보건소 내의 건강정보와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주민홍보용 소책자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아랍어로 돼 있었다. 우리나라도 1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는 현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졌다.

일본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소형차중 티코와 프라이드 같은 모델을 보고 처음에 반가워했으나, 일본제품이 오리지날임을 알고 실망을 하였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으로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대상국이며 전에 그들이 행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우리의 발전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연수기간 내내 들었다.

일본이 이미 정상에 도달하였지만, 우리는 개개인의 능력에서 뒤지지 않고 더구나 우리는 남북의 대치가 종결이 되면 분명히 일본보다 더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